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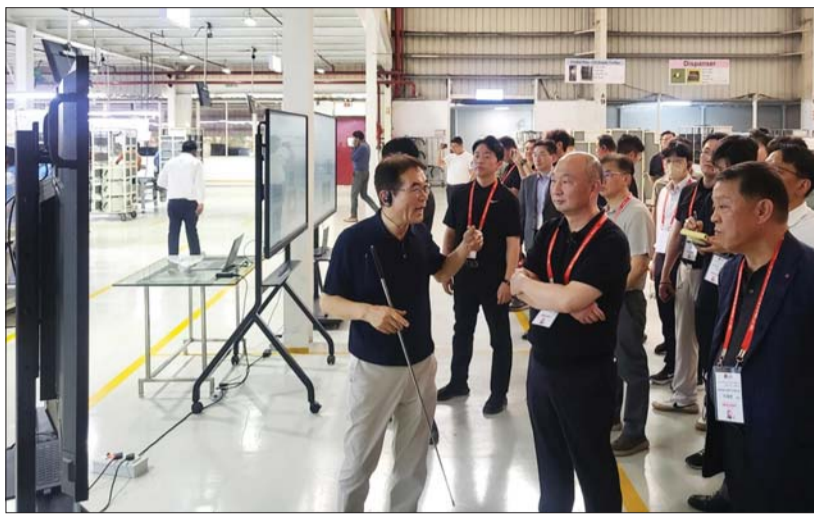
디지털트윈·AI 접목... LG전자, 협력사와 공정 혁신

협력사와 인도 공장 찾아 사례 공유 스마트공장·ESG펀드 자금 등 지원

LG전자가 협력사와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제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디지털트윈은 현실 공간을 가상 공간에 정밀하게 구현하는 기술을 말한다. 실제 공장을 디지털 공간에 구현하면 AI·빅데이터 등을 통한 분석이 수월해져 운영 효율을 높일 방법을 찾을 수 있다.

LG전자는 최근 주요 협력사 대표 11명과 함께 인도 푸네 생산공장을 찾아 제조 공정을 점검하고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고 1일 밝혔다. 협력사들이 해외 생산법인의 선진 공정을 직접 체험하고 기업 간 벤치마킹을 통해 제조 역량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현장에서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에어컨 부품을 생산하는 한 협력사는 수작업 공정을 자동화해 생산성을 2배 이상 높이고 불량률을 75% 이상 낮췄다. 공정 디지털화를 통해 설비



LG전자와 협력사 임직원들이 생산성 개선 우수 사례로 꼽힌 LG전자 국내 협력사의 인도 현지 공장을 함께 둘러보고 있다. /LG전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발생 시 조치 시간도 기존 대비 67% 줄였다.

냉장고 부품 협력사 역시 도장 공정에 '스마트 복합 도장라인 DX 시스템'을 도입했다. AI 기반 비전 검사 시스템을 적용해 제품 색상 분류와 품질 검사를 자동화하면서 검사 시간은 75% 줄고 도장 불량률도 약

70% 감소했다.

LG전자는 협력사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가전 전시회 'AWE 2026'에 협력사를 초청해 글로벌 제조 트렌드를 공유했으며, 올해는 인도를 시작으로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주요 생산 거점 방문 프로그램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경남 창원 LG 스마트파크에서 83개 협력사가 참여한 '2026년 협력회 정기총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협력회는 LG전자와 협력사 간 상생 협력을 위한 협의체로,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또 LG전자는 피지컬 AI와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활용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19년 이후 지원을 받은 협력사는 250곳을 넘는다. 이와 함께 3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와 ESG펀드를 통해 자금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이자 설비 투자 지원 규모를 기존 4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재현 LG전자 글로벌오퍼레이션센터장은 "협력사들이 최신 기술과 생산 방식을 직접 경험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베트남 '계약물류' 드라이브

CJ대한통운은 베트남 소재 CJ제마뎀 법인의 물류부문을 지분을 추가 취득하고 비핵심사업인 해운부문을 분리하는 등 사업재편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베트남 호치민 CJ빌딩에서 열린 CJ대한통운·제마뎀간 물류-해운 지분거래 계약 체결식에서 CJ대한통운 이종훈 경영지원실장(왼쪽 세번째)이 제마뎀 응우옌 탄 빈 CEO(왼쪽 네번째)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CJ대한통운



"LGU+ 장기고객이라면 뮤지컬 함께 봐요"

LG유플러스는 장기고객을 대상으로 뮤지컬 관람 행사 '혜택데이'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직원이 코엑스아트룸에서 장기고객 초청 행사인 뮤지컬 '렘피카'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SK하이닉스, 2년 연속 WMEC 선정

글로벌 윤리경영 역량 입증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윤리경영 평가기관 에티스피어로부터 2년 연속 '2026년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WMEC)'로 선정됐다.

에티스피어는 기업 윤리 관행의 표준을 정의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세계적인 윤리경영 평가기관으로 자체 개발한 '윤리 지수'로 평가를 진행해 매년 WMEC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17개국, 40개 산업 분야에서 총 138개 기업만이 선정됐으며 반도체 분야에서는 전 세계에서 5개 기업만 이름을 올렸다. 국내 기업은 SK하이닉스가 유일하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국내 반도체 기업 최초 선정에 이어 2년 연속 이름을 올리며 윤리경영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에티스피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는 SK하이닉스 구성원들. (왼쪽부터) SK하이닉스 윤리실천 한기혁 팀장, 에티스피어 Erica Salmon Byrne 최고전략책임자 겸 이사 사회 의장, SK하이닉스 윤리실천 이혜미 TL, 장선재 TL, Tom Bubeck 에티스피어 CEO. /SK하이닉스

입증했다.

평가 기준은 지난해보다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 기존에는 특정 윤리경영 제도 운영 여부를 물었지만 올해는 활동계획 수립, 실행 프로세스, 활동 완료 후 효과성 평가 증빙 자료까지 요구했다.

/구남영 기자

전종석 상무, 상공의 날 '대통령 표창'

(LG디스플레이)

국내 기업 주도권 확보 기여 공로

LG디스플레이는 전종석 상무(사진)가 지난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3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상공의 날'은 국가 경제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상공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공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매년 상공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근로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부 포상이 수여된다.

전 상무는 글로벌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고부가가치 중소형 OLED 공급을 확대하고, 대형 OLED 고객



전종석 상무

기반을 넓히며 글로벌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주도권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2000년 LG.Philips LCD(현 LG디스플레이)로 입사한 후, 지난 26년간 디스플레이 산업에 몸담으며 시장 및 고객 기반 확대에 힘써왔다. 모바일·IT·TV 전 제품군의 영업·마케팅을 두루 거치며 LG디스플레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하나금융, '도토리나무 키우기'로 탄소중립 실천

하나금융그룹은 지속 가능한 숲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그룹 임직원이 참여하는 '도토리나무 키우기'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도토리나무 키우기 봉사활동은 하나금융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진정성 있는 ESG활동으로, 2024년부터 현재까지 그룹 임직원 780여명이 참여했다.

/하나금융그룹



'카카오테크 캠퍼스', 지역 개발자 양성 강화

카카오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카카오테크 캠퍼스'를 AI 중심으로 개편하고 4기 교육생 모집을 시작했다. 이번 4기는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등 5개 거점 국립대에서 총 150명을 선발한다. 교육생들은 카카오 현업 개발자의 멘토링을 통해 실제 서비스 개발 환경을 경험하게 된다.

/카카오



아모레퍼시픽,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 2관왕

아모레퍼시픽이 '제20회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Korea Star Awards 2026)'에서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3월 31일 개최된 제20회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 시상식에서 2개 부문을 수상했다.

/아모레퍼시픽

인사

- ◆보건복지부 ◇3급 승진 △장관비서관 신재형 △기획조정담당관 오상운 △북지정책과장 이현주 △통합돌봄정책과장 장영진 △한의약정책과장 왕형진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공인식 △보훈약제과장 김연숙
- ◆라이나생명,라이나원 ◇라이나생명 △서민호 소비자보호본부 상무 △김형남 재무관리본부 상무 △백혜진 회계본부 상무 △오수연 RM본부 상무 △이슬이 법무&프라이버시본부 이사 ◇라이나원 △박상섭 경영관리부문 전무 △김영현 영업지원본부 상무 △이상호 영업지원부 이사
- ◆교보증권 ◇보임(부서장) △채권운용부장 김택우 △ECM1부장 김태완

부음

- ▲이문호(한국은행 전 국제협력실장)씨

별세, 이태운(한국은행 국제협력국 국제기구팀장)씨 부친상 = 3월 31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일. 02-2227-7500

▲박영식(변호사-전 광주지방법원장-전문중재위원)씨 본인상, 박재형(PWC 컨설팅 상무)-박수현-박지혜씨 부친상, 임은정씨 시부상, 김동진(국민은행 건강전략센터원장)씨 장인상 = 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4월 3일 오전 6시 20분, 장지 소망동산. 02-2258-5919

▲조재선씨 별세, 김성민(BNK금융지주 홍보부 과장)씨 모친상=1일 오전, 부산진구 시민장례식장 304호, 발인 3일 오전 8시. 051-636-4444

▲강임화씨 별세, 김재호(춘천지방법원장)씨 모친상, 나경원(국민의힘 국회의원)씨 시모상 = 3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층 31호실, 발인 4월3일. 02-2258-5946

창립 37주년... 성장동력 확보 강조

기술보증기금이 창립 37주년을 맞아 글로벌 기술금융 선도기관을 위해 추가로 도약한다.

1일 기보에 따르면 김종호 이사장(사진)은 이날 창립기념사를 통해 "그간 기보는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을 위한 R&D 금융을 비롯해 녹색금융, M&A 보증 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제도를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왔다"면서 "현재의 역할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금융 선도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지원 강화 ▲글로벌 기반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공정성·청렴성을 바탕으로 한 국민 신뢰 확보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김종호 이사장

나갈 것을 당부했다.

기보는 이날 별도의 창립기념식 행사 대신 김 이사장이 참여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임직원 간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 독립점 후원과 도서 전시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교감하며 상생의 의미를 되새긴다.

한편, 기보는 올해 5조4000억원의 신규보증을 포함해 총 30조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해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기술선도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 회수를 위한 중소기업팩토링 1000억원을 공급하고 창업기업과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연계투자5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생산적 금융도 강화한다.

/김승호 기자